

## 모리스 센닥 그림책의 심리 해석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 조명 - Vanhoozer의 문화 해석 관점을 중심으로\*

**An Analytic Study of Christian Worldview about Maurice Sendak  
Picturebook within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Cultural Interpretation of Vanhoozer**

이수형 (Soo Hyung Lee)\*\*

박은주 (Eun Ju Park)(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ABSTRACT

The picture book genre began with *Orbis Sensualium Pictus*, which was the first picture book and was written to teach children about God's existence and word. In today's world, however, picture books' role has shifted from teaching children to representing their intense and exciting emotions and expressing what it means to be a child. Researchers view Maurice Sendak's picture books as marking this shift. Given the publication of an increasing number of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s of Sendak's picture books, this study followed Vanhoozer (2007) and performed text analysis on one of Sendak's books from a Christian viewpoint.

In Sendak's *In the Night Kitchen*, within the world the book's actual text creates, a child is enjoying the United States in the industrial era. According to a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of the book as belonging to the fantasy genre, the child fulfills his needs through daydreaming. In the world behind the text, this study found that the author was a third-generation Jewish immigrant who received psychological therapy for the anxiety he developed as a teenager due to becoming financially independent at that time and having to support himself. As a writer, the author's attitude was unethical, and he did not care about children. Regarding the world before the text, researchers have revealed that Sendak's

\* 2023년 5월 12일 접수, 6월 9일 최종수정, 6월 14일 게재확정

\*\* 안산대학교(Ansan University) 언어치료아동보육과 겸임교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 melodyofsea@naver.com

\*\*\* 경민대학교(Kyungmin University) 유아교육과 교수,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ejphong@hanmail.net

picture books tended to attract more adults than children, with the former viewing them as a form of emotional release; consequently, progressive thinkers praised Sendak's picture books.

Approaching the text from a Christian viewpoint, this study found an egoistic perspective, suggesting that humanism and psychology led people further away from God, producing more egotism in our society.

**Key words:** Theological Cultural Hermeneutics, Christian Light, Psychoanalytic,

## 1. 서론

그림책의 시작은 어린이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초의 그림책 Comenius의 『세계도회 Orbis Sensualium Pictus』(1658)는 교육 자료로서 글 내용과 함께 감각적인 그림을 넣어 어린이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교사의 지식이 전달되는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현은자, 2022). 오늘날 까지도 『세계도회』는 현대 교육에서 그림책에 주는 의의와 중요성을 고찰하는 연구(김병희, 김유라, 2013; 나현규, 2021)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림책 연구는 미학에 더 치중하며 예술적 감각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예술가들의 예술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전하는 가치는 언급하지 않거나 일부는 성인의 예술 경향을 함께해도 좋다는 평가들을 보이고 있다(Beckett, 2012; Meibauer, 2017).

그림책은 어린이가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도서로서 글과 그림, 세상을 보여준다. 그림책 작가는 어린이가 이해하기 쉽게 성장과 발달 과정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Piaget의 언어 발달,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등의 단계이다. 그 이유는 어린이가 그림책을 만나면서 사물의 형태와 모양, 글자와 문장을 알아가며 세계를 깨닫게 된다는 것(강나라, 2023; 구복숙, 2003; 남규, 2009; 노서운, 2019; 이화진, 2011; 정주원, 2005)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림책 연구는 교육을 목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김현주, 2022). 예술과 문학을 겸비한 독특한 매체 특성으로 학제간의 연구들도 있으며, 예술 가치를 높이 해석하며 현대 창작 그림책의 특성을 연구하기도 한다(현은자·김세희, 2007).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현대 창작 그림책의 시초를 Maurice Sendak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 Where the Wild Things Are』(1963)로 언급한다(권나라, 2008; 김애용, 2000, Kidd, 2011; Kloss, 1989; Reed, 1986). 그들은 그림책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 한다는 것에서 벗어나 유아의 격하고 흥분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어 아이다움을 발산한다고 강조한다. Sendak의 그림책은 어떠한다는 관념을 깨뜨린 동시에 파괴성을 보임으로서 솔직하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 주장은 서구 사회가 계몽주의를 시작으로 진리(Truth)보다 인간의 감각적 본성을 우위에 두는 것과 유사하다(Greene, 2001). 심리학자들은 Sendak의 그림책이 무의식의 감정을 다루었다고 보았다(Richard, 2008). 그들은 환상을 이룰 수 없는 꿈(백일몽)으로 비유하며, Max가 꿈속의 괴물들과 한바탕 벌이는 소동 이후 현실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흡족한 상태로 자아를 찾았다고 한다.

이러한 해석은 정신분석(psychoanalyse)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 Freud가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unconscious)이 지배한다는 기본 가설을 만들며 시작되었다(생명과학대사전, 2008). 그는 무의식에 억압된 신체표현장애(Hysterie)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식에 있는

고통(pain)과 욕망(desire)이 변화하여 신경증(neurosis)으로 표출되는 가설을 발견하였다. Freud는 심리의 기초를 종족 보존 본능인 성욕에 두고 불쾌를 회피하고 쾌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심리의 모든 것을 성욕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였기에 이에 동의하지 않은 다른 학자들은 그와 결별하고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었다. Freud는 정신분석의 초석을 닦으며 인간을 이해하는 하나의 거대한 심리학 분야를 건설하는데 기여했으나 성에만 집중된 인간 해석은 개인에 국한된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아 보편성이 없는 한계가 있다(이재현, 2021).

Freud의 심리 해석은 학자의 주관적 경향으로 어린이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어린이 자체가 2차 성징이 이루어지기 이전이며 신체적으로 성에 대한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Freud의 심리학적 이론은 어린이를 성적으로만 해석하는 주관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둘째로, Freud와 결별한 연구자들인 Jung과 Adler 등(이재현, 2021)이 지적하듯, 그의 해석은 다른 변인을 모두 무시하고 성이라는 변인만을 다루는 환원주의를 가졌다. 따라서 그림책에 나타난 아이의 욕구를 정신분석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오늘날 그림책의 심리 해석과정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단편적이다. 그 만큼 대중적이지 않은 연구 분야로서 그림책 자체를 심리 분석하는 비평과정은 많지 않다. 그 시도를 Sendak의 그림책으로 하였으나(Fretz, 1970; Kloss, 1989; Lanes, 1980), 당시에 논란을 일으킬 뿐이었으며 그림책의 심리해석적 경향은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Sendak의 동성애사실과 결합한 심리학적 논의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Kidd, 2011; Moskowitz, 2018). 본 연구는 어린이 그림책에 대한 심리해석의 부적절함을 논증하기 위해 Sendak의 작품 중에 Fretz(1970), Haviland(1971), Kloss(1989)와 Lanes(1980)에 의해 심리해석으로 분석된 『깊은 밤 부엌에서 In the Night Kitchen』(1970)를 대상으로 하였다.

최초 그림책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존재를 알려주기 위한 감각적 자료(김병희, 김유라, 2013; 나현규, 2021; 현은자, 2022)였지만, 지금은 인간의 감정에 천착하고 해소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 Sendak의 그림책이 다수의 심리 해석적 의의를 가지는 이유도 현대그림책의 개념을 재정립한 것에 있다(Kloss, 1989). 즉, 아이들에게 유익한 것의 기준을 지성에서 감정으로 바꾼 것이다. 칼데콧 상뿐만 아니라, 린드그렌 상을 최초로 받은 Sendak에 대한 수상평가가 아이들 감정을 솔직하게 다루었다(ALMA, 2023; alsc, 2023)는 것에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많은 그림책 지망생들이 그를 따라 그림책에 다양한 감정을 등장시켰다. 현대에 만들어지는 다수의 그림책은 우울함, 고통, 외로움 등을 다루면서 동시에 현대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주제로 한다(이수형·현은자, 2022). 세계를 알려주는 전제로 그림책 개념을 볼 때 이는 매우 불편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사회의 어두운 면들은 고통과 악에 가깝기 때문이다(Peck, 2007).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이들이다. 따라서 심리해석은 불편한 사실과 밀접하다. 상담심리학의 창시자인 Freud는 유물론자로서 놓칠 수 없는 물질에 대한 갈망으로 불행에 집착하였고, 명성을 위한 교만으로 힘들어 했으며, 자신의 노화로 인한 나약함을 보이고 싶지 않아 죽음 역시 안락사를 선택했다(Nicholi, 2004). 인간의 문제를 연구하는 심리학자이지만, 자신의 문제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모순을 볼 수 있다. Nicholi(2004)는 『Lewis vs Freud. The Question of God』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C.S. Lewis의 삶을 소개하며 Freud와 대조적인 행복을 가졌다고 보았다. 저자인 Nicholi(2004) 역시 심리학자로서 인간의 고통을 연구했지만, 기독교 세계관이 유일한 해결점을 준다고 하였다. 심리학 의사인 Peck(2007)도 하나님만이 고통의 문제해결 중심에 있다고 강조한다. 결국 심리학은 인간의 고통을 밝히려는 노력을 보이지만 유물론에 집착할 뿐이다. 이에 대한 바른 시선을 갖고자 기독교 세계관으로 밝혀 보는 비평이 요구된다.

Vanhoozer(2009)의 『문화신학 Everyday Theology』은 인간을 둘러싼 문화를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기독교 세계관의 시선을 갖도록 도왔다. 문화의 신학적 비평은 오늘날 도전받는 ‘기독교적 문명사회’로부터의 멀어지는 현대사회에서의 ‘탈 기독교화’(Pike, 2017)에 대하여 신앙인에게 문화에 대한 바른 시선을 시사한다. Vanhoozer(2009)의 문화 해석 방법론은 문학을 포함한 문화의 세 가지 층위인 텍스트 자체의 세계, 텍스트 뒤의 세계, 텍스트 앞의 세계로 분석하는 것이다. 텍스트 자체의 세계는 현재 문학에서 보이는 특성으로 그림책의 표지, 면지, 글과 그림이 보여주는 문학요소 등을 말한다. 문학요소는 인물, 플롯, 배경, 주제이며, 각 요소에 나타난 사실을 살펴보는 것이다. 텍스트 뒤의 세계는 그림책이 탄생하기까지의 저자의 환경, 교육, 가정을 알아보고 작가에게 영향을 미친 성장과정에서의 교육적,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다. 텍스트 앞의 세계는 그림책이 탄생하여 사회, 독자, 시상 등으로 세계와 환경에 끼친 영향이며, 독자의 서평에서부터 국제적인 상을 수상한 이후의 평판 등 문화적 영향까지도 포함한다. Vanhoozer(2009)의 문화해석 방법론은 문화가 세상에 보인 다양한 층위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숨겨진 의미까지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문화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에 탁월(Olson, 2017)하여 기독교인으로서 문화를 비평하는 바른 시선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Vanhoozer(2009)의 문화해석방법론을 사용하고자 한다.

어린이 그림책 문화도 탈 기독교화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초의 그림책이 갖는 의미는 퇴색되고 있다. 그림책의 숨겨진 의미, 또는 세계관이 어린이에게 주는 함의는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현은자와 김주아(2019)는 미국의 그래피티 예술가, Basquiat의 삶을 다룬 『빛나는 아이』 그림책이 갖는 ‘표현적 개인주의 세계관’을 Vanhoozer의 문화해석방법론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그림책이 예술가의 능력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예술가의 삶의 모순은 배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현은자와 김주아(2019)는 전기 장르의 특성상 어린이에게 좋은 예술가는 기교에 있다는 것을 남겨 주는 오류를 보이며, 윤리적 측면을 포함한 삶의 비전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수형과 현은자(2022)는 백희나 그림책 『이상한 엄마』에 나타난 판타지가 어린이에게 적절하지 않은 성인의 호러장르로 이의를 제기하며 Vanhoozer의 문화해석방법론으로 ‘뉴에이지 세계관’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어린이에게 적합한 장르연구에 탁월한 분석방법론으로 Sendak의 판타지 장르를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은자, 이지운(2021)은 Anthony Browne의 그림책 『고릴라』에 나타난 이미지를 분석하여 텍스트의 숨겨진 의도를 통해 이야기가 함축하고 있는 전복(subversion)의 성격을 밝혔고, 어린이 텍스트조차 이데올로기에 사용되는 시대에 평론가도 윤리적인 차원에 동참하고 있다며 그들의 책무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어린이를 상대로 성을 암시하는 것에 목고하는 연구자들에 대한 책무성을 강하게 거론하고 있다. 본 연구도 선행연구에서 거론한 책무성과 결을 같이 한다. Sendak의 그림책을 심리해석으로 분석하는 심리학자들은 대부분 어린이의 성을 가볍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평론가뿐만 아니라 심리해석에 대한 윤리적 책무성을 지녀야 할 것을 본 연구를 통해 논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Vanhoozer(2009)의 문화 해석을 분석틀로 하여 어린이 그림책을 하나님 주신 창조세계의 본질을 알리는 최초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돕고자 한다. 따라서 현대 그림책의 시작이라 일컫는 Maurice Sendak의 그림책 『깊은 밤 부엌에서』를 심리 해석하는 여러 사회적 현상들과 함께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Maurice Sendak 그림책의 세계관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은 어떠한가?

- 1-1. 텍스트 자체 세계는 어떠한가?
- 1-2. 텍스트 뒤의 세계는 어떠한가?
- 1-3. 텍스트 앞의 세계는 어떠한가?
- 1-4. 세계관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은 어떠한가?

## II. 텍스트 자체의 세계

### 1. 표지와 속표지 (paratext)

Sendak의 그림책 『깊은 밤 부엌에서』는 1970년 작품이다. 표지는 손으로 그린 포스터와 같이 도심 한복판의 크고 작은 건물과 밤 풍경이 그려져 있다. 그림책의 내용에 따라 그림 양식과 작업 형태를 바꾸는 Sendak은 『깊은 밤 부엌에서』 그림책에 만화(Cartoon)와 팝아트(Pop Art)를 적극 사용하였다(채널에스, 2023).

표지 그림은 주방의 재료들이 건물처럼 크게 그려졌고, 건물 간판은 재료들의 상표임을 알 수 있다. 그 안에 작은 인물을 대조한 형식의 팝아트는 동시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그림 양식이다. 당시의 산업사회에서 대량 생산과 소비를 풍자하는 의도로 공장에서 나오는 공산품을 크게 그려내어 그 존재를 부각시켰다. 대표적인 팝아트 예술가로 Andy Warhol을 꼽을 수 있다. 1963년 Warhol은 ‘팩토리(Factory)’로 명명한 그의 작업실에서 마치 공장의 대량 생산 조립라인(Assembly Line)과 같은 작업 체제를 도입했다. 그가 2년 동안 작업하여 인쇄된 실크스크린 작품만 무려 2000점이 넘었고, 브랜드 신화를 생산해 낸 예술가이면서도 창작과 유통, 소비의 전략을 가졌다(노동법률, 2022). Sendak은 산업사회 중심에서 상업성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예술의 배경에서 탄생한 작가임을 알 수 있다.

속표지에는 커다란 컵을 머리에 쓴 소년이 손까지 덮는 갈색의 옷을 입고 더 연한 갈색의 비행기를 타고 웃고 있다. 마치 높이 떠 있는 듯 둥근달이 소년의 뒤를 비춰주고 있으며 별들이 길게 이어져 있다. 이후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고, 서지사항이 짧게 있으며, 헌정사 페이지로서 Sendak의 부모 이름인 ‘새디와 필립에게’가 쓰여 있다. 비행기를 탄 소년의 말풍선에 있는 ‘엄마! 아빠!’라는 글이 헌정사의 해석을 더 해 준다. 부모와 관련 깊은 작품이다.

### 2. 그림책의 본문

첫 장의 어둡침침한 배경과 4면 분할에 이어지는 잠에서 깬 소년의 외침은 Sendak이 바라보는 현실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어두운 밤이지만, 모든 장면이 밤에 이루어지는 이 그림책에서 다른 장면보다 현실은 어둡고 칙칙하다. 그리고 현실에서 소년은 화가 나 있다. “쿵쿵, 쿵쿵, 툭툭, 팡...” 요란한 소리에 깬 미키가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친다. “거기 좀 조용히 해요!” 글자가 매우 크게 적혀 있어 미키가 상당히 화가 났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미키는 상들리에가 있는 천장까지 올라간다. 이때 미키는 분명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내려올 때는 옷을 입지 않은 나체의 소년이다.

글은 ‘미키는 깜깜한 데로 굴러떨어지면서 옷이 벗겨졌어’라고 쓰여 있다. 배경에는 커다란 벽시계, 커튼, 창문틀, 바닥의 카펫과 같은 여러 가지 인테리어가 당시의 뉴욕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때부터 꿈 또는 환상이라고 보인다. 그 이유는 나체의 소년 미키가 중력에 구애 없이 다른 장소에 가 있기 때문이다.

둥근 보름달이 떠 있고, 커다란 그릇 안의 반죽 속으로 미키가 스르르 들어가고 있다. 배경은 주방 용품이 건물같이 그려져 있고, 미키를 바라보는 세 명의 요리사가 밀가루와 소다, 소금통과 수저를 들고 웃으며 서 있다. 글은 ‘으응? 환한 부엌으로 떨어졌네?’라며 미키가 부엌에 있다는 정보를 준다. 지속적으로 나체의 소년이 나타나고, 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다. 환상이 가득한 이 그림책에서 달은 항상 둥근 달로 충만함을 보여준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나체의 미키는 요리사들에 의해 반죽 속에 잠긴다. 요리사는 미키(Mickey)를 반죽에 넣고, ‘반죽에 밀크(Milk)를! 반죽에 밀크(Milk)를! 저 어라! 주물러라! 만들자! 굽자!’라는 노래를 한다. 요리사는 이윽고 미키가 잠식된 반죽을 오븐에 넣는다. 글은 ‘아저씨들은 반죽을 구우려고 했겠지? 맛있는 미키 빵을 만들려고. And they put that batter up to bake a delicious Mickey-Cake.’라고 번역본과 원문이다. 다소 충격적인 ‘Mickey-Cake’라는 단어를 볼 수 있다. 오븐에 적힌 상표도 ‘Mickey Oven’이다.

다음 장에는 연기가 한창 피어오르는 사이로 미키가 오븐을 열고 나와 반죽을 입은 채로 ‘난 밀크(Milk)가 아니야, 밀크(Milk)는 내가 아니야! 난 미키(Mickey)란 말이야!’라고 말한다. 난처한 요리사의 얼굴이 보인다. 미키는 어느 정도 익은 반죽옷을 입고 새로운 반죽에 뛰어든다. 미키는 반죽을 주먹으로 치고, 치대고, 잡아 뜯어서 비행기 모양을 만들었다. 미키는 반죽 비행기를 타고 날기 시작한다. 빵 가게의 요리사 세 명은 계량컵을 들고 아침 빵을 만들 밀크가 필요하다고 쩡그리며 소리친다. 미키는 ‘왜들 야단이세요? 난 비행기 조종사 미키(Mickey)라구요! 내가 미키웨이(Mickey Way)에서 밀크(Milk)를 구해오겠어요!’라며 날아간다. 하늘 높이 날아가는 미키는 달을 넘어 날아가고, 달은 점점 아래로 떨어진다. ‘깊은 밤 부엌 안에서 밀키웨이(Milky Way) 꼭대기까지 날아갔지’라고 글이 부연하고 있다. 다른 어떤 재료(건물)보다 큰 우유병은 상표, 장식과 뚜껑이 없이 하얗다. 미키는 우유병 입구 위에 떠 있고, 요리사 셋은 높이 있는 미키를 바라본다.

다음 장면은 4면 분할되어 있는 연속된 그림으로 우유병 안으로 미키가 떨어지면서 나체로 유평하는 장면이다. 글은 ‘우유 배달부 미키는 바닥으로 보웅-곤두박질쳤어. Mickey the Milkman dived down to the bottom. 노래를 하면서. Singing’, ‘난 밀크 속에 있고, 밀크는 내 속에 있다아 - I’m in the Milk and the Milk’s in me’, ‘밀크에게 축복을 내게도 축복을! God Bless Milk and God Bless Me!’라고 쓰여 있다. 심리학자들의 정신분석에서 이 장면은 소아의 성해방을 상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Haviland, 1971; Kloss, 1989; Lanes, 1980). 이 논란은 텍스트의 영향력을 분석



하는 ‘앞의 세계’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미키는 컵으로 우유를 반죽에 부어 주었고, 요리사들은 빵을 구워낼 수 있게 된다. 이윽고 신난 아저씨들은 노래를 한다. 이때에도 글은 운율(rhyme)을 느끼도록 철자를 Batter(반죽)과 Matter(문제)로 맞추었다. 이러한 운율은 계속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Mickey, Milk와 Mickey way, Milky way이다. 미키가 한참 오븐에 구워지려는 순간도 운율을 맞추었다. ‘of the Steaming, and the Making, and the Smelling, and the Baking’으로 ‘-ing’를 맞추어서 여러 장면에서 시나 노래처럼 느껴지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마지막 장면에는 미키가 다시 어두운 방으로 돌아왔다. 나체의 미키는 침대로 떨어져 이불을 감싸고 웃고 있다. 어느새 잠옷을 입고 있는 미키가 하품을 하며 잠에 빠져든다. 이 장면은 잠에 빠져드는 과정을 4면의 분할된 배경으로 그렸다. 사방이 점점 밝아지며, 아침이 된 것 같다. 마지막 면지의 그림에 미키가 우유병을 들고 서 있다. 글은 ‘우리가 아침마다 빵을 먹을 수 있는 건, 그래그래, 다 미키 덕분이야.’라고 쓰여 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난다.

### 3. 장르와 문학구조 (플롯, 배경, 인물, 주제)

이 작품의 장르(genre)는 현실에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로 판타지 장르이다. 현대 그림책에서 정신분석적 해석은 아이들의 상상이 백일몽, 즉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비현실적인 세계를 상상하는 욕구 충족으로서 판타지 기능을 강조한다. 심리해석을 하는 연구자들은 꿈이 현실의 불만족을 해소하는 심리적 장치라는 ‘꿈의 해석’을 발달시킨 Freud의 이론 안에서 설명한다. 그러나 그림책에서 판타지 요소는 소소하게 일반화되어 있다. 어린 꿈이 말을 하고, 사람처럼 걸어 다니는 모습은 매우 흔하기 때문에 말하는 동물은 판타지로 보지 않고 그냥 인물로 볼 정도이다(현은자·김세희, 2007). 주인공인 사람이나 사물이 중력에 구애 없이 날아다니는 이야기는 플롯이나 인물의 설정상 필요할 때도 있다. 판타지는 이야기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본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림책의 판타지를 어린이의 욕구불만으로 한정 지을 이유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많은 상상력을 제약한다.

문학의 구조 4가지는 플롯, 배경, 인물, 주제이다(Frye, 2000). 이 그림책의 플롯(plot)은 미국의 만화가이자 애니메이터인 Winsor McCay의 연재만화 『Little Nemo』(1905-14)와 유사하다(Kidd, 2011). 만화의 플롯은 소년의 꿈으로 어린 시절의 묘사가 자주 등장한다. 미국의 경제 부흥기를 지

1) 애니메이터(Animator)는 빠른 순서대로 여러 이미지를 생성하여 움직이는 동작을 이해할 수 있는 작업자로 예술가들에 속한다. 만화는 네모난 레이아웃 안에 선으로 그림을 그리는 2D(2차원)의 연속된 장면이라면, 애니메이터는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게임 등 3D(3차원)를 가지는 다양한 분야이다.

나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자란 어린 Sendak이 느끼고 보았던 상들리에와 인테리어, 홀로코스트, 2차 세계대전의 군복, 공장에서 나오는 많은 가공품들과 식재료, 엄마의 죽음과 화장터의 슬픈 역사적 배경(setting)이 그림책에 유쾌하게 담겨 있는 아이러니를 보인다(Donald, 2000; Joseph, 2000; Kidd, 2011). 따라서 플롯은 어린 미키를 통해 작가의 암흑 같은 어린 시절을 밝고 유쾌한 상상력으로 회상하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배경은 플롯에 담긴 의미를 보여주듯, 작가가 성장한 시절의 도시와 가정을 보여준다. 주제(theme)는 어린 미키가 꿈의 유평을 통해 우유를 공급해 준 영웅으로서 존재가치를 충족하는 것이다.

등장인물(character)은 요리사 셋과 미키이다. 몇 장면에서 미키가 엄마, 아빠를 언급하지만, 헌정사에 이름을 올렸을 뿐 그림책에 구체적인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다. 미키는 오이디푸스 갈등을 겪는 4세에서 6세 사이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아 어린 유아로 추측된다. 미키가 반죽으로 만든 갈색의 옷은 특이하게도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군복을 연상하게 하고, 비행기를 만들어 날아가는 모습에서 군용기를 떠올리게 한다. 히틀러를 닮은 요리사 셋과 대척점을 이룬다.

### III. 텍스트 뒤의 세계

#### 1. 작가의 성장과정

Sendak의 일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점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그의 부모는 폴란드에서 이민하여 미국에 정착한 이민자로서 Sendak은 이민자 3세이다. 그는 어린 시절 신나게 뛰어놀거나 웃으며 장난을 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다고 한다(Ludden, 2005). 그 이유는 부모의 친척, 가족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 고통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늘 슬퍼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로 인해 Sendak은 부모를 미워하게 되었고, 어린 시절은 정상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를 모면하고자 그는 형제나 아버지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고, 이때 들려주던 이야기는 친척들이 유럽에서 어떻게 죽어갔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었다고 한다(Ludden, 2005).

Joseph(2000)은 Sendak의 작품이 홀로코스트의 공포를 담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깊은 밤 부엌에서』에 등장하는 콧수염 난 요리사가 히틀러의 악몽 같은 이미지와 연결되며, 화덕에 아이를 굽는 장면은 유대인 학살을 위한 방과 연결됨을 강조한다. Joseph(2000)에 의하면 Sendak이 나치 수용소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림책을 완성한 것은 1993년 초판이 발행된 『우리는 모두 우울해요. We Are All in the Dumps』라고 한다.

Donald(2000)는 어린이 문학의 공간은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적절하게 입증한 것 이상의 효과를 말한다. 그는 작가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회상하는 이야기는 어린이 문학에서 배경이 될 수밖에 없기에 Sendak은 홀로코스트를 그림책의 글과 그림에 투영했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Sendak의 고통이 그림책에 고스란히 담겨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브루클린에서 가난하게 자란 그에게 형제, 자매의 돌봄과 사랑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문제는 항상 있었다고 회상한다. 축척된 문제는 Sendak이 뉴욕에서 혼자 살게 된 10대에 심리적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했다(Sutton, 2003). 그로 인해 오랫동안 심리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유대인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타국을 떠돌면서도 뛰어난 상인으로서 경제력을 쥐거나, 문학가로서 언어 등에 탁월하였으며, 그러한 요소들은 그들이 속한 지역의 무역에 기여하며 부를 쌓았다. 시민으로서 땅의 소유가 금지된 그들은 상업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던 것이다. 유대인으로서 Sendak의 부모가 겪은 지인들의 죽음과 슬픔의 홀로코스트 경험은 역사적으로 반복된 문제였다(류모세, 2010).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유대민족은 자신의 탁월한 능력으로 타국에서 부를 축적하면 다시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나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스페인, 콜럼버스 항해에 참여한 요직들도 유대인들로 신대륙, 영국, 독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건립에서 그들의 이주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 현재 미국을 움직이는 인물도 3%의 유대인이라고 한다(류모세, 2010).

그들은 구약의 백성으로 신약을 믿지 않는 대립의 민족이기도 하다.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개종을 통해 타국에서 흡수될 수 있었으나, 철저히 자신의 유대교 신앙을 믿는 민족이었다. 다시 이스라엘, 지금의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는 ‘시온주의’를 가졌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고 국권을 회복하였고, 1967년 6월 5일에서 10일까지의 제3차 중동전쟁인 6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영토를 확장하면서 팔레스타인에서 확고한 독립국이 되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구약을 보면 유대민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유대민족이 더 탁월하고, 더 선하고, 더 놀랍다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유대민족이 정말 더 거역하고, 더 불순종하고, 더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끝까지 거역하여 쫓막 땅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런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돌보시고 언약을 지키셔서 마침내 구원하셨다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다. 구원의 경험을 담은 구약 성경은 모든 인간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대인은 모든 인간의 예시로서 등장하는 민족일 뿐이다(정현구, 2022). 따라서 Sendak도 선민의식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를 더 위로해 줄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 2. 어린이 문학의 작가 정신

일반적으로 문학에서 ‘작가 정신(Artistic Spirit)’은 작가가 가지고 있는 정신으로 창작물을 만드는 활동의 바탕이 된다(네이버사전, 2023). 특별히 어린이 문학에 대한 작가 정신은 어린이를 먼저 생각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문학의 한계를 넘어 어린이에게 인간성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참다운 지식인이 되도록 이끄는 의의가 어린이 문학에 있다(최미선, 2022). 어린이에 대한 윤리의식이 강조되는 보편적인 어린이 문학의 작가 정신을 토대로 Sendak을 살펴보고자 한다.

Sendak은 가족을 떠나 18세의 어린 나이에 독립하면서 불행했던 어린 시절과 불안한 현재의 마음을 심리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2008년 New York Times와 인터뷰는 그가 죽기 4년 전에 있었다. 그는 십 대에 독립하여 살면서 나타난 불안으로 심리치료를 시작했고 그것은 지속됐다. Sendak은 이때 만난 정신분석가인 Eugene Glynn과 동거하면서 50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2008년 인터뷰에서 고백했다(Patricia, 2008). 그는 어린이가 그림책 작가로서 활동하던 20-30대에 이 사실을 밝히면 자신의 작업에 해가 될 것 같았다(Patricia, 2008)라고 말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인다. 어린이 그림책 작가로서 해가 될 것 같아서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보면 어린이 그림책 작가로서 자신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Sendak이 도덕적, 윤리적 예의가 있었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예술작품을 했어야 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숨기는 것은 윤리적이지 못하다. 그것은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좋은 인격,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부족하고 이해 받기 어려울 지라도 양심에 따라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고 판단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태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 특히 어린이 그림책 작가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었다면,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속였다는 것이 사실이다. 또 하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작업을 하는 것일 뿐이기에 그의 작품에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투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어린이에게 전해질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의 작품세계는 어린이 그림책보다는 성인의 예술세계에 더 어울린다. 그러나 그는 예술세계보다 상업적으로 진출하기 쉬운 어린이 그림책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Sendak의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나체의 어린이 정면 그림에 성인들이 기저귀 그림을 덧칠해야 했고, 어린이가 Sendak의 책을 읽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자녀를 보며 난감해하는 부모의 고민이 있었다. 또 괴물이 나타나는 두려움을 보이는 자녀가 공포를 느끼는 것의 원인이 Sendak의 그림책이라는 부모의 토로가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Sendak의 그림책이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부모, 전문가의 의견이었다(Annunziato, 2014; Bettelheim, 1969)

Sendak의 여러 인터뷰를 들여다보면 그의 태도가 어린이를 위한 작가로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곳곳에 있다(Ludden, 2005; Sutton, 2003). 2003년 The Horn Book Magazine 인터뷰에서 그는 단호히 자신을 상업 예술가라고 한다(Sutton, 2003). 어린이에 대해 모르지만 자신은 그림책 작업을 하면 행복해지고, 모든 억제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강조한다. 15살 때부터 일을 해야 했던 Sendak은 그림책 작업이 자신이고, 사는 방식이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로 상업 예술가로서 그림책 작업을 한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았기 때문인 것(Sutton, 2003)이라고 했다. Sendak의 처음 시작은 일러스트레이터(상업 예술가)로서 글을 쓰는 다른 작가와 협업하여 그림만을 그렸다. 1958년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Wat Do You Say, Dear?』, 1961년 『무엇을 해야 할까요? What Do you Do, Dear?』은 Sesyle Joslin이 글을 썼고, Sendak이 그림을 그렸다.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예절 책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렇게 협업으로 여러 작품을 하다가 1956년 『케니의 창문 Keynny's Window』을 처음으로 Sendak이 혼자 글과 그림을 모두 지었다. 이후 일생 동안 100여 편의 작업을 했으나, 그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업을 바라볼 뿐이었다.

2005년 Washington, D.C 라디오 인터뷰에서 Sendak은 스토리 라인 중에서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주제는 ‘어린이를 겁주는 것’이라고 웃으면 말한다(Ludden, 2005). 그는 아이들을 위해 그림을 그리지 않으며, 심지어 아이들을 위해 글을 쓰는 법을 모른다고 한다. 그림책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아이들에게 좋을까? 넣어야 할까? 아니면 말아야 할까?’를 고민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젊은 예술가들이 Sendak에게 그림책 작업을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있었다. 당시 인터뷰어인 Ludden은 Sendak에게 어린이를 위해 글을 쓸 수 없다고 방금 말하지 않았는가를 되물었다. Sendak은 “그들은 아이들을 위해 글을 쓰는 법을 배우러 이곳에 오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지 말라는 인큐버스(incubus)<sup>2</sup>로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있다.”라고 답변했다(Ludden, 2005; 1). 여기서 인큐버스란 악마를 은유한 용어이며, Sendak의 이기적인 면을 느낄 수 있다. 어린이에게 세상을 알려주는 그림책에 무엇을 담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작가적 관점이 들어 있을 뿐이다. 이를 통해 그의 느슨한 도덕의식을 엿볼 수 있다.

가치 변별을 중심으로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인 양심이 결여된 작가의 작품은 윤리적일 수 없을 것이다. 정신분석 방법론을 사용한 ‘자유연상’ 드로잉을 아무 가치변별 없이 Sendak은 그림책에 사용했다(Richard, 2008). Sendak은 개인 서신을 통해 『괴물들이 사는 나라』, 『깊은 밤 부엌에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를 자신의 3부작이라고 불렀다. 세 그림책에 사용된 밑그림들은 정신분석 방법론에 따라 환자를 위한 무의식 표현의 작업인 ‘자유연상’ 드로잉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정신분석 방법론이란 자유연상을 활용하여 무의식에 잠

2) 인큐버스(incubus)는 여러 신화와 전설상에 등장하는 악마로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된 사고가 의식으로 나타나도록 하여, 문제를 의식화하고 상담을 통해 치료를 해나가는 Freud의 심리치료 방법론이다(김춘경, 2016). 1952년경 Sendak이 24살에 클래식을 들으며 떠오르는 대로 그림을 그렸다. 그는 ‘판타지 스케치’, ‘의식의 흐름 낙서’, ‘꿈의 그림’ 등 다양한 스케치를 만들었다(Richard, 2008). Sendak은 마음에 떠오른 모든 것을 종이에 그려 밖으로 나오게 하고, 의식적으로는 한 페이지에 전체 이야기를 완성하였다. 확실한 것은 Sendak이 그림책 판타지에 대해 원시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3부작의 예비 스케치를 추려냈다. 이 스케치는 Sendak의 작업 원본의 대부분이 보관되어 있는 필라델피아 로젠바흐 박물관 및 도서관에서 볼 수 있다(Richard, 2008). 『깊은 밤 부엌에서』에서 미키가 잠에서 깰 때 소란한 이유가 그림책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Sendak의 자유연상 스케치에는 엄마와 아빠가 침대에서 안고 있는 성적인 그림이 그 이야기 연상선에 있었고, 최종 그림책이 나올 때는 빠지게 되었다고 한다. 정신분석 치료에서 그려진 자유연상 그림은 철저히 보안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밀유지 항목이다. 환자의 심리치료 자유연상 스케치 공개는 연구 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생명윤리법 제3장 인간대상 연구 및 연구대상자 보호 제19조인 기록의 유지와 정보의 공개에서 기록, 보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법률, 2019). Sendak이 이러한 작업을 그림책에 사용하였음을 알면서도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분석하고 일반화하기에 급급할 뿐이며 Sendak의 연구에 대한 윤리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 3. 어린이 문학과 정신분석

마지막으로 Freud는 『억제, 증상, 불안』에서 유아가 필요한 것으로 인해 긴장이 증가되는 불만족은 불안에서 온다(Freud, 1926; Kloss, 1989)고 이론화하였다. 그러나 Freud의 이론은 방법론적 환원주의와 일반화의 오류라는 한계(이재현, 2021)를 가지고 있다. Kloss(1989)는 엄마가 없을 때 Sendak이 심장마비를 만난 듯, 죽음과 같이 자신을 잃는 상실감을 가지며, 그것은 불안의 원형과 두려움이 된다고 하였다. 엄마와의 이별과 버려진 감정이 Sendak의 초기 불안(어릴 때 갖게 된 불안)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하였다. Sutton(2003)은 『괴물들이 사는 나라』의 주인공 맥스가 거친 장난을 치는 것은 엄마의 사랑에 대한 불만족에서 생겨난 불안이 원인이며, 미키도 소란에 대한 분노와 불안은 부모와 잠자리에서 소외됨이 근원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그림책은 Freud의 정신분석으로 심리해석하는 것은 엄마와 자녀만을, 더 나아가 이성의 부모-자녀에 대한 사랑에만 집착하고 해석하여 방법론적으로 환원주의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자녀의 건강, 성격과 기질, 그 외에도 환경, 타인, 빈부, 등의 외부요인 등에 대한 논의는 모두 빠져있다. 부모요인도 동성부모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으며, 기타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짐으로 사랑이 있다 없다로 단순화할 것이 아니다.

정신분석 방법의 가장 큰 전제는 모든 어린이가 불안과 불만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일반화이다. Sendak의 그림책에 많은 불안과 불만족, 두려움과 공포가 숨어 있으며, 어린이의 비합리적 욕구와 관계가 들어 있음에도 일반적인 어린이가 모두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없다. 정신분석은 과거 트라우마를 지우기 위해 심리학자인 의사와 나누는 은밀한 것이다. Sendak이 자유연상으로 그림을 그렸고, 그것이 그림책에 담겼다면 그것은 개인의 것으로 소장해야 할 것이다. 결코 모두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일반적인 문학이나 예술작품이 아니다. 오늘날 상담실에서 이러한 자료들은 윤리적인 차원, 정보공개에 입장에서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또한, 연구자들은 연구 윤리 차원에서도 개인의 무의식 그림은 어떠한 자료로도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 여부의 동의 과정도 상당히 까다롭다. 즉, Sendak의 그림책을 일반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임상적으로 트라우마가 있거나, 과거 불만족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을 보이는 사람들의 무의식의 발로는 건강하지 않은 양상이다. 따라서 Sendak의 그림들은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다루어야 긍정할 것이다. 결코 평범한 모든 어린이가 즐기기엔 적절하지 않다. 오늘날 Kidd(2011)와 같은 퀴어 이론가들이 Sendak의 성공을 부각시키고, 프로이트주의를 주류 심리학으로 칭송하면서, Sendak의 퀴어 성격을 인정하게끔 주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런 편향된 주장은 불편한 (uncanny) 우울과 불안을 담은 그림책이 등장하며 어린이 그림책에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 IV. 텍스트 앞의 세계

### 1. 수상으로 얻은 평판

Sendak이 1963년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발표했을 때 다수의 교육자, 사서, 부모들은 이 그림책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그림책의 그림을 중심으로 상을 수여하는 칼데콧 위너상을 1964년에 받음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Sendak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Sendak이 느끼기에 그 당시 어른들은 자녀가 Sendak의 책을 보지 않기를 원했으며, 어린이들도 정말 싫어하거나, 매우 좋아하는 양극단으로 나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마침내 칼데콧에서 수상하였고, 그 이후 사람들은 자녀가 좋아하기를 바라게 되었다고 Sendak은 말한다(Sutton, 2003).

68혁명과 문화혁명이 시작된 1960년에서 2000년까지 이어지는 포스트모더니즘은 탈과학, 탈이성, 탈도덕 등 무신론이 지배적이었다. 이 흐름에 걸맞은 내용을 한 그림책이 바로 Sendak의 저작

들이다. Sendak을 현대 그림책의 시작으로 보는 것도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칼데콧이 지지하는 현대그림책 특성은 오로지 예술성에 있었다. Sendak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가 1964년 칼데콧 위너상으로 메달을 받았고, 1971년 『깊은 밤 부엌에서』가 칼데콧 아너상을, 1982년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로 칼데콧 아너상을 한 번 더 받았다. 어린이 문학상으로 위상 높은 칼데콧은 Sendak의 그림책이 좋은 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칼데콧의 선정 기준으로 그림의 비중이 크며, 교훈적인 의도는 배제한다(alsc, 2023)는 점에서 그 내용과 세계관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다(현은자, 김주아, 2019). 일반인들에게 여러 차례의 수상 소식은 Sendak의 그림책과 같이 어린이에게 부적절하다는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지도를 바꾸어 명성을 얻게 하고 그 내용과 세계관을 분별하기 전에 높이 평가하며 신뢰하게 만드는 맹점을 가져왔다.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Sendak은 ‘미국 국가 예술상 (National Medal of Arts)’을 받았다. 이 상은 미국 정부가 예술인에게 수여하는 상(賞) 가운데 최고 영예로 꼽히는 상이다. 2016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부활절에 아이들에게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읽어주는 영상이 공개되었고, 신문 기사 및 인터넷을 통해 화제가 되었다(국민일보, 2016). 시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가로서 함의가 있다.

2003년 스웨덴 정부는 최초의 린드그렌상 수상자로 Sendak을 선정하였다. 수상의 영예는 한화로 6억이 넘는 상금과 함께, Sendak의 파괴적 유아 본성을 아동의 권리로 존중하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을 일반화하는 데 기여했다. 린드그렌상의 선정 기준은 성인 사회를 공격하는 이데올로기에 있으며, 기존의 관습 및 가치를 전복(subversion) 하는 의미를 가진 이야기에 수여하고 있다(이수형, 현은자, 2022).

## 2. 퀴어 성격을 강조하는 사후 명성

Sendak의 사후에는 그를 추모하며, 그의 퀴어 성격을 높이는 책들이 등장하고 있다(Kidd, 2011; Moskowitz, 2018). 이 책들은 유대인, 예술가, 어린이, 그림책, 정신분석, 동성애 등을 연결 지어 포장한다. 이것은 창조질서와 세계를 어지럽히는 금지된 행위들을 예술과 심리학이라는 어려운 학문과 이어진 것과 같이 보이게 하며, 가장 순수하고 힘이 없는 어린이의 세계를 침범하여 자신들의 자리로 채운다. Sendak이 어린이를 위하지 않는다고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듯이, 이러한 책들의 목적도 어린이를 위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정신분석과 아동문학의 교차점을 다룬 Kidd(2011)는 특히 Sendak의 작품을 주요하게 언급했다.



어린이 문학이 트라우마의 발로이고 그 시작은 Sendak이라고 하였지만, Kidd는 쿼어 전문가로서 책을 썼다. 이는 Sendak이 어린이 문학가보다 동성애 예술가인 사실을 높이는 것이다. Kidd는 정신 분석학을 내세운 Sendak의 작품으로 쿼어이론을 일반화하려고 애쓴다. 이는 유대와 기독교에서 분명히 금하는 동성애의 행위를 높이며, 일부 지지자들로부터 Sendak을 우상화하는 모습이다.

Moskowitz(2018)도 Sendak의 동성애 논란을 유대인 문학이 위대하다는 칭송 속에 하나의 문화로 여기게 만들려고 시도한다. 그는 미국에 정착한 유대인 동성애 어린이 작가로서 그들은 Sendak의 정체성을 규정해 버린다. 유대민족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동성애를 금지하던 민족이었다. 가족을 중심으로 탈무드 교리에 따라 강한 결집력과 신앙심을 보였던 민족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은 기독교와 대척점을 이루며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있다(KRM News, 2020). 그들은 스스로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한다.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대-기독교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 3. Sendak 작품에 대한 정신분석 논문들

이 장에서는 Sendak의 『깊은 밤 부엌에서』 작품을 정신분석으로 해석한 논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Freud는 신화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줄 모르고 살해하고, 어머니인 줄 모르고 아내로 맞은 오이디푸스의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 Freud는 『꿈의 해석』(Freud, 1900)에서 오이디푸스 갈등(Oedipus Complex)이라는 정신분석 이론의 개념을 소개했다. 그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어머니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것이 어린 소년이 가지는 삶의 보편적인 단계라고 하며, 이러한 소원은 무의식적일 수 있다고 한다. Freud의 성에 편향적인 정신분석 이론은 다른 학자들과 갈등을 일으킨 주요 문제였다. 따라서 오이디푸스 갈등은 그대로 받아들여 그림책을 해석하는 것은 성편향의 한계를 가지게 된다.

Sendak 그림책의 정신분석 해석은 엄마에게서 성적 판타지를 소유한 어린 미키라는 것이 주요 내용뿐이며, 다음과 같다. Freud의 정신분석 해석으로 Sendak은 아빠인 동성 부모와 동일시되는 콤플렉스를 그림책의 주인공 아이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Kloss, 1989). 정신분석 이론가들은 Sendak이 어린이의 성적 취향을 다룬 최초의 작가라고 한다(Kloss, 1989). Sendak이 미키를 통해 나타낸 어린이의 성적인 행위를 그리며 찬양 한다(Fretz, 1970; Kloss, 1989). 미키의 유행은 자위의 환상 그림이다(Lanes, 1980). 『깊은 밤 부엌에서』이야기는 부모의 성행위에 대한 미키의 복수이다(Haviland, 1971). Sendak은 많은 성적 주제를 가지거나 코믹하게 폭력적이다(Kidd, 2011). 이와 같이 어린이의 성 해방을 주장하며 어린이 문학인 그림책에서 다루어진 장면의 해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적인 생각을 일반화한다.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성혁명에 대한 위협을 Gabriele Kubly는 경고한다. 이것은 가정의 근간을 파괴하는 혁명이며,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늘어나 위험하다는 것이다(Kuby, 2018).

부모-자녀 관계는 성이 아니라 애착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한 가지 예로, Bowlby의 애착 이론은 부모-자녀 관계를 의존과 정서적 안정을 느끼는 정도로 해석한다(박경순, 2010). 이 해석은 오늘날 부모와 자녀의 상태를 알아보는 좋은 기준이 되곤 한다. Sendak의 책이 처음 나온 1960-70년대의 교육자, 학자, 심지어 심리학자들조차도 어린이 그림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들을 보이며 위의 정신분석과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Sendak의 내용은 그림책의 카타르시스가 필요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는 불안을 줄 수 있다(Cech, 1995).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읽어준 엄마들이 자녀가 창밖에 나쁜 남자가 있다고 호소한다거나, 그 이후에 괴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걱정이라는 상담을 했다(Bettelheim, 1969). 또한 Sendak의 환상은 어른의 환상이며, 그것은 어린이에게 다른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어린이의 환상은 어른과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성인의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며, 결과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Mallet, 1994). Sendak의 책은 아이의 입장에서 쓰여 있지만, 작가 자신의 분노를 이해하기 위한 구성이다(Bruce, 2009). Sendak의 책이 어린이 문학에 대한 이해보다 아이들의 감각에 근거하여 만들어졌고(Sale, 1978), 성에 대한 개념이 비현실적이다(Favat, 1977). Sendak의 책에 어린이는 관심이 없으며 어른이 더 좋아한다(Bruce, 2009). 실제로는 많이 판매되었지만, 어린이들의 반응은 뜨겁지 않다. 도서 포털 사이트에 1994년에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깊은 밤 부엌에서』의 도서 구매 후 남기는 크로버 리뷰가 고작 8개뿐이다(Kyobo, 2023).

그러나 이러한 많은 주장들을 뒤로하고, Sendak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판매 부수가 2000만 부에 달했고 32개 언어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다(Charles, 2013). 이런 결과는 유명인들의 추천과 칼 테컷상 및 린드그렌상 등의 결과도 있지만, Rollin(2012)은 아동문학과 정신분석의 공생관계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Kidd가 출판한 『Freud in Oz』 도서의 서평에 “Kidd가 정신분석학과 아동문학이 이익으로 서로 먹고사는 상호 간의 특성을 위해 공통의 관점을 탐구하였다.”(Rollin, 2012; 501)라고 하며, 서로가 노이즈 마케팅을 일으키며 수익의 관계에 있음을 공공연한 사실로 밝히고 있다.

## V. 텍스트의 세계관과 기독교적 조명

### 1. 텍스트의 세계관

Sendak의 그림책은 심리학에 근거하여 비평이 이어졌고, 오늘날 그림책의 의미를 바꾸어 놓았다. 그의 그림책은 어린이에게 세상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불안과 불만에 대한 표출의 장이 되었다.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면, 그러하지 않았던 아이들에게 자신의 감정에 치중해서 부모를 대하게 가르치는 모델이 된다. Sendak의 작품은 이렇게 자신 위주로 세상을 보게 하는 자아주의 세계관을 가졌다.

‘자아주의’란 인간 본성을 우위로 하는 인본주의가 집착하는 자아에 대한 숭배를 말한다. 그것의 기원은 스탕달의 작품 『에고티즘(egotisme)의 회상』에서 사용한 것으로, 오로지 자신의 발달과 안녕을 추구하는 자기 숭배적 태도를 의미한다. 영어의 에고티즘(egotism)은 이기주의와 동일하게 쓰이지만, 의미는 조금 다르다. 이기주의가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것이라면, 자아주의는 자기에 관한 것만 말하고 집중하며 타인에 대해 공감 없이 자만을 의미한다(철학사전, 2009). 그림책의 기능이 역할 모델(role model)<sup>3</sup>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Sendak의 작품은 어린이에게 어떤 모습을 따르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뉴욕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Paul Vitz는 자아주의 세계관이 심리학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지적했다(Vitz, 2010). 그는 30년 가까이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독교로 회심한 저명한 심리학자이다. 그는 심리학의 결과로 떠오른 자아숭배와 인본주의를 다룬 심리학 비평에서인 『신이 된 심리학 Psychology as Religion: The Cult of Self-Worship』(2010)을 썼다. Vitz는 Carl Jung의 집단 무의식이 종교적 영성과 연결된 융 심리학의 마지막 과제가 자기실현이라고 보았다. 또 Vitz는 Erich Fromm의 심리학은 인본주의 최고의 가치가 자아에 대한 긍정뿐이며, 신본주의인 기독교에 강한 적대감을 보인다고 했다. Fromm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인본주의적 공산 사회주의라는 것을 『건전한 사회 The Sane Society』(1996)에서 드러내고 있다. ‘인본주의’란 인간의 가치를 주된 관심사로 삼는 사상으로 오직 인간성(humanity)만이 존귀하다는 실증주의적 인간성 숭배의 사상이다(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1995).

인본주의 교육철학을 주장하는 John Dewey의 사상은 심리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내담자 중심

3) 역할모델(role model)이란 사람의 특정한 사회적 역할의 실행에서 드러나고 지지되는 적절한 가치, 태도, 행동들이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사람은 타인과 같은 역할의 수행 속에서 모델 대상을 닮으려고 시도하며 그 모델과 동일시한다. (출처: 사회학사전. 고영복. 2000)

상담을 외친 Carl Rogers는 Dewey의 사상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내담자 중심 요법’ 기술로 자아, 즉 자신의 감정에 더욱 천착하는 작업을 주장한다. 본인이 누군가와 갈등을 겪는다면, 그 대상이 가장 가까운 부모, 아내나 남편이어도 옳지 않다. 자신을 반성하기보다는 오로지 자신이 중심에 있다. 가족의 희생을 더 강조할 뿐이며 양보와 인내는 타인의 몫이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Scott Peck은 심리치료를 통하여 드러난 인간의 악에 대한 본질을 증언한다. 그는 타인에게 죄를 묻는 진단에 능하지만 치료에 확신이 없는 심리치료이기에 치료의 여정이 쉽지 않으며, 다만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해 증언할 뿐(Peck, 2007)이라고 하였다.

인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논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자기중심적으로 해결하려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졌다. 이를 지지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자아이다(이수진, 2019). 심리학 이론가들은 자아를 중시하여 해석하고, 사람들은 자기 위주 편향의 나르시시즘을 만들게 되었다(Morf, Horvath & Torchetti, 2011). 그들은 자존감이 부족한 것을 사회 환경 탓으로 돌리게 되었다. Vitz(2010)는 현재 미국인의 파괴적인 행동과 악은 ‘낮은 자존감’을 핑계로 묵인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회사에 매일 지각해서 해고를 당한 A는 자신이 ‘우울증’으로 행동이 느려진 것이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복직했다. 이 우울증은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이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타당한 이유가 되어 버렸다. 지각은 규율을 어기는 것의 문제이지 개인의 낮은 자존감 문제가 아님에도 타인과 다른 핸디캡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규율의 무너짐은 모든 사람이 가정의 문제, 우울증, 낮은 자존감 등에 더 집착하도록 만들어 버렸다(Vitz, 2010).

오늘날 가족에서 분리된 개인을 Vitz(2010)는 자아주의에서 원인을 찾았다. 가족은 서로를 위하는 특성을 가진 공동체의 근본이기에 개인을 우선시하는 성격과는 상반된다. Vitz는 “자아주의의 개념과 가치가 영구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일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혹은 의무, 인내, 자기희생처럼 헌신을 필요로 하는 가치들과도 별 관계가 없다.”(Vitz, 2010; 109)라고 했다. 이로 인해 자아주의는 이혼과 결별, 결혼이나 가족 관계를 해체하는 가치를 옹호하기 때문에 가족의 붕괴에 크게 기여했다. Vitz(2010)는 자아주의가 심리적으로 중요한 많은 사건들을 사회 문제로 돌리는 한편, 사회에 대한 책임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 대답하지 않으려 함을 지적한다. 현대사회에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을 특징짓는 대인관계를 보면 어린 시절 자신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자기중심적이며, 성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Vitz, 2010). 그들은 더 나아가 가족을 이룰 의미를 찾지 못하고, 책임감이나 관계에서 가볍고 일회적이 되며 결국 고독과 우울만이 남아 진정한 인간됨을 상실한다. 그 충족을 위하여 물질적 성공에 집착하게 하는 소비 철학이 증가되었고, 그 소비는 구체적으로 여행, 음식, 패션에 관련한 것들이다. Vitz(2010)는 이것을 자기 탐닉

의 쾌락(douceurs)으로 보았다.

이처럼 인간을 우위에 두는 인본주의 사상들을 통해 자아는 어느새 신의 자리에 올라섰다. 이것은 우상숭배로서 자아주의가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의 결과는 단절, 우울, 자존감의 하락 등으로 이어진다. 인간됨이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존재라는 것에서 시작한다.

어린이 그림책에 나타나는 심리학자들의 정신분석적 해석은 자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게 한다. Sendak이 그림책 작업에 해가 될까봐 자신의 동성에 사실을 숨겼다면 그것은 극도의 이기주의로서 자신의 자아만을 보호한 것이다. 어린이 그림책 작가로서 자신은 어린이에게 관심도 없으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Sendak의 작가 정신은 자아만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아주의는 건강한 방식의 어린이 문학을 만들 수 없다. Wilkens와 Senford(2009)는 현대 사회 속에 혼재되어 있는 세계관들은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채 작동되고 있고,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같이 우리의 문화와 일상의 삶에 스며들어 있다고 한다. Sendak의 그림책에는 예외와 격식을 무시하는 어린이가 등장한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의 맥스는 “내가 엄마를 잡아먹어버릴 거야”라고 엄마에게 소리 지르는 어린 소년이며, 『깊은 밤 부엌에서』는 잠에서 깬 미키가 “거기 좀 조용히 해요”라고 소리를 친다. 맥스는 집 안에서 포크를 들고 개를 쫓아다니며 계단을 뛰어내리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불을 줄에 걸치고 지저분한 영역을 만든다. 나체로 유평하는 미키는 옷을 입지 않은 채로 우유 통에 들어가 우유를 가져온다. 맥스는 현실이고 미키는 상상의 어느 지점일 수 있지만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행동이다. 자신의 욕구를 바람직하게 해소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신중한 태도를 알아가야 하는 시기가 어린 시절이다. 즉, 어린이들이 자제력과 예의, 인내심과 같은 좋은 가치를 배울 기회를 지나쳐 버리고, 장난으로 해소하는 것을 배우게 될 수 있다. 어린 시절에 욕구 충족에 집중한다면, 성인이 되어가면서 더욱 자아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연구자들은 어린이가 자아의 욕구 해소에 집중한 그림책을 보고 자라는 사이에 어떠한 자아가 무의식 속에서 형성될 것인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책의 예술영역이 강조된다 하더라도 주요 독자 대상이 어린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그림책 작가로서 어린이 독자들에게 대한 사랑이 배제된 Sendak의 '자아주의 작가정신'에 대하여 재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 2. 기독교적 조명

우리는 심리학의 정신분석적 해석을 곁들인 그림책을 살펴보면서 자아가 우상이 되어버린 자아주의 세계관을 알아보았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한다. 이러한 원인들은

‘인간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던 과거와 달리 인간 자신의 감정에 두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본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대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하심처럼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사랑하며 영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동역자로 세우셨다(김기철, 2013). 이러한 신본주의를 잃어버리고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가 개인의 자아를 중요하게 만든 심리학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심리학자들 중에는 인본주의를 버리고 기독교로 회심한 학자들도 있다. Vitz는 스텐퍼드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철저한 무신론적 심리학자로 경력을 쌓아가다가 30대 후반에 기독교로 회심하였다. 그는 전문가적인 학문과 기독교 신앙의 통합 및 심리학 개념 비평으로 유명하다. 그는 뉴욕대학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자아주의에 관한 저서를 다수 출판했다(kyobo, 2023). Jordan Peterson은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였고, 현재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며 『질서 너머』, 『의미의 지도』, 『12가지 인생의 법칙』 등 다수의 저서를 출판한 200만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Peterson은 무기력하고 우울한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심리학 이야기로 인지도를 올리고 있으며, 무신론자였고 심지어 회의론자였다. 그러나 2017년에 기독교로 회심하였다(크리스천투데이, 2023). 그는 성경과 기독교 가치가 인류 역사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 실존적으로 믿는다고 고백한다.

Erikson은 심리사회적 자아발달을 미성년기의 자아발달과 성인기의 자아발달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그는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발달은 대체로 부모를 비롯한 주변의 성인들 내지 사회집단과의 자기동일시(self-identification)을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성인기의 자아발달은 주로 자기헌신(self-commitment)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Erikson의 관점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서로를 위한 존재(being for others)’라는 기독교적 인간관과 일치하는 것이다(이재현, 2019; 481). Erikson의 이론에서 종교의 성격은 인성발달의 초석을 만들어 주며, 출생 직후부터 신앙은 발달하기 시작한다고 보았다(안신, 2008). 그는 신뢰를 제공하는 부모처럼, 종교라는 제도는 믿음을 제공하고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Sendak의 그림책에 나타난 미키는 옷을 입지 않은 펼침면이 7장이며, 만화의 카툰형식으로 한 장에 여러 미키가 순차적으로 등장하여 전체적으로 14번 벗은 몸의 미키가 등장한다. 작가 Sendak은 미키를 보호하거나 그의 인권을 존중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작가가 미키를 사랑했다면, 멋진 슈트(suit)를 입혀주었을 것이다. 미키를 오븐에 넣어 굽는 장면 역시 미키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모습이다. 그림에도 미키는 반죽을 박차고 나아가 스스로 만든 비행기를 타고 우유 통으로 향한다. 그가 우유를 구했기에 빵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영웅의 스토리를 만들어 낸다. Sendak은 어린 시절

자신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미키라는 어린 인물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얻고자 했다. 그는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자신의 고통에 천착한 사람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없다. 그것은 창조한 세상에서 타락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쓰여 있다. 성경은 어린 아이의 것을 버리고 온전한 것을 알라고 설명한다. 고린도전서에서 온전한 것은 믿음,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임을 알게 되는 맥락을 담고 있다. Sendak이 그토록 원했던 사랑을 그는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기독교세계관으로 들어감은 성경의 말씀을 지침삼아 자신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Sendak이 기독교세계관으로 회복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가는 구속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것은 어린 아이의 고통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 온전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다. 무한히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참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아심리학과 하나님이 제시하는 나와 이웃에 대한 태도와 사랑은 다르다.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40절에서 말씀하신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너 자신 같이 사랑하라 이다. 가장 먼저 자신도 이웃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한다. 그다음, 스스로를 향해 있는 사랑의 감정을 밖으로 돌려 이웃을 사랑함으로 관계에서 오는 정을 느끼라고 한다. 기독교는 그렇게 연결(관계)의 신앙이며, 따뜻함을 지닌다. 오늘날 심리학의 결과들과 반대 지점이며, 기독교는 인간됨과 진리의 삶으로 인도한다. 심리학이 기독교의 창조-타락-구속의 세계관에서 자아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구속된 삶, 구원의 길로 가야 한다.

## VI. 결론

대부분의 연구가들이 현대 창작 그림책의 시초를 Sendak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1963)로 언급한다. 그들은 그림책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 한다는 것에서 벗어나 유아의 격하고 흥분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어 아이다움을 발산했다고 한다. Sendak의 그림책은 어떠한 해야 한다는 관념을 깨뜨린 동시에 파괴성을 보임으로써 솔직하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마치 서구사회가 계몽주의를 시작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인간의 본성을 우위에 두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Vanhoozer(2007)의 텍스트 자체, 뒤, 앞의 세계 분석에 따라 Sendak의 그림책 『깊은 밤 부엌에서』을 분석한 결과는 심리학

에 근거한 정신분석적 해석들이 어린이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Sendak 자신이 해소하고 싶은 어린 시절의 대리만족으로써 성인의 감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Sendak이 청소년기에 심리치료를 받았을 때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그려낸 드로잉이 그림책의 기초가 되었으며, 그의 작가 정신은 상업성이 강하고,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 태도로 어린이를 위하지 않았다. Sendak은 자신의 자아에만 천착한 자아주의 세계관을 가지며, 이는 인본주의가 바탕을 이루어 오늘날 심리학에서 형성한 세계관이다. 인간 본성을 우위에 두는 인본주의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아주의를 통해 오늘날 외로운 사회와 개인을 양산하였다.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아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아주의가 어린이에게 어떠한 것을 심어줄 수 있는가에 대해 부모와 교사, 사서 등의 독자들은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Sendak을 포장하고 있으며, 진보적인 경향이 Sendak의 작품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린이들은 Sendak의 그림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Bruce, 2009). 부모가 칼데콧 메달이 금박으로 입혀진 표지를 보거나, 32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많은 판매 부수가 있다는 출판사의 광고를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간의 행동은 그 사람 혼자만의 문제로 이해할 수 없고 개인과 그를 둘러싸여 얽혀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Sendak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으로 태어나 겪었던 어린 시절의 복잡다단한 환경을 고려할 때 연민의 정과 함께 그의 심리적 고뇌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의 그림에 대한 예술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 작가로서 유아의 발달적 특성이나 그들에 대한 사랑 없이 만들어진 자아주의적인 작품을 유아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어린 유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흥행하는 것과 달리 실제 텍스트의 문화해석은 어린이를 위해 필요하기에 차후 텍스트 비평이 지속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강나라 (2023). 만3세 유아의 그림책 읽기를 통한 언어발달의 변화 탐색.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Kang, N. L. (2023). *Examining Changes in Language Development of 3-year-olds Through Reading Picture Books*. Masters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 권나라 (2008). 어린이용 판타지 그림책에 구현된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기호학적 연구: 모리스 센닥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Kwon, N. L. (2008). *A Semiotic Study on the Illustrations embodied in the Phantasy Picture Books for Children - Focused on [Where The Wild Things Are] By Maurice Sendak*. Masters Dissertation. Deajin University, Pocheon, Korea.]
- 구복숙 (2003).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적 놀이 활동이 영아의 창의적 신체표현, 지각운동, 언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 [Ku, B. S. (2003). *The Effects of Integrated Play Activity Using Picture-Books on Infant's Creative Physical Expression·Perceptual Motor·Language Abilities*. Doctoral Dissertation. Joongbu University, Geumsan, Korea.]
- 김기철 (2013). 놀이로 구현되는 하나님 형상. 신학사상, -(160). 75-108.
- [Kim, G. C. (2013). *Imaging God of Play. Theological Thought*. -(160). 75-108]
- 김병익 역(1999). **건전한 사회**. Fromm, E. (1996). *The Sane Society*. Holt, Rinehart & Winston. 서울: 범우사상신서.
- [Kim, B. I (1999). *A Healthy Society*. Seoul: Bumwoosasanginsue. Trans. Fromm. E. (1996). *The Sane Society*. Holt, Rinehart & Winston.]
- 김병희·김유라 (2013). 세계 최초의 그림책 『세계도회』에 나타난 언어교육론 고찰.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3). 95-112
- [Kim, B. H. & Kim Y. R. (2013). A Study of Language Education for Young Child on the World's First Picture Book, *Orbis Pictus*. *Korean Society of Children's Literature & Education*. 14(3), 95-112.]
- 김애용 (2000). 모리스 센닥의 그림책에 나타난 환상적 표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Kim, A. Y. (2000). *A Study on Fantastic Expression in Maurice Sendak's Picture Books*. Masters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김춘경·이수연·이윤주·정종진·최용용 (2016). **상담학 사전**. 서울: 학지사.
- [Kim, C. K., Lee, S. Y., Lee, U. J., Jaung, J. J. & Choi, U. Y. (2016). *A Dictionary Of Counseling*.

Seoul: Hakjisa.]

- 김현주 (2022). **그림책 관련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연구동향 분석: 1983-2020년 석.박사학위 논문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Kim, H. J. (2022). *Analysis of trends in research on master's and doctoral degree papers related to picture books in Korea. - Focusing on the thesis of master's and doctoral degree papers in Korea from 1983 to 2020*. Masters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나현규 (2021). 코메니우스의 『세계도회』(Orbis Pictus) 구조를 통해 본 교육적 의미 연구. **교육철학연구**. 43(1). 23-46.
- [Na, H. K. (2021) A study on the meaning of education through the structure of Comenius's Orbis Pictus.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43(1). 23-46.]
- 남규 (2009). **교사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영아의 언어발달 비교**.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Nam, G. (2009). *A Comparative Study on Toddler's Language Development by teacher's Interaction Type during Picturebook Reading*.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노서운 (2019). **그림책을 활용한 실외놀이 활동이 만 2세반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언어발달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
- [Noh, S. W. (2019). *The influence of outdoor play activities with picture books on two year olds' prosocial behavior & language development*. Doctoral Dissertation. Gunsan National University, Gunsan, Korea.]
- 류모세 (2010). **유대인 바로보기**. 서울: 두란노.
- [Ryu, M. S. (2010). *A direct view of the Jewish People*. Seoul: Durano.]
- 박경순 (2010). 존 보울비(John Bowlby)와 애착이론. **한국심리치료학회지**. 2(1). 109-119.
- [Park, K. S. (2010).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2(1). 109-119.]
- 박옥주·이종원 역 (2017). **복음주의 신학사 개관**. Olson, R. E. (2007). *Pocket History of Evangelical Theology*. 서울: 크리스천투데이.
- [Park, U. J. & Lee, J. W. (2017). *Overview of Evangelical Theological History*. Seoul: Chistiantoday. Trans. Olson, R. E. (2007). *Pocket History of Evangelical Theology*. Westmont: IVP Academic.]
- 법률 (201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372호, 2019. 4. 23., 일부개정.

- [Act. (2019). *Act on Bioethics and Safety*. No.16372. 2019. 4. 23., Partical Revision.]
- 서울대학교육연구소. (1995).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
- [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1995). *A Dictionary of Pedagogical Terms*. Seoul: Howdongsul.]
- 송은정 역 (2017). **C. S. 루이스의 순전한 교육: 시민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교양**. Pike, M. A. (2013). *Mere Education: C. S. Lewis as Teacher for our Time*. 서울: IVP.
- [Song, E. J. (2017). *C. S. Lewis's Mere Education: The Cultivation of Christians Living in Civil Society*. Seoul: IVP. Trans. Pike, M. A. (2013) *Mere Education: C. S. Lewis as Teacher for our Time*. Cambridge: Lutterworth Press.]
- 안신 (2008). 에릭 에릭슨의 종교심리학에 대한 연구 - 발달이론과 종교이론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14). 179-196.
- [Ahn, S. (2008). A Study on Erik Erikson's Psychology of Religion: Theories of Development and Religion. *Religion and Culture*. -(14). 179-196.]
- 안중희 역 (2013). **은밀한 세계관: 우리를 조종하는 8가지 이야기**. Wilkens, S. & Sanford. M. (2009). *Hidden Worldviews: Eight cultural Stories That Shape Our Lives*. 서울: IVP.
- [Han, J. H. (2013). *A secret worldview: The Eight Stories That Manipulate Us*. Seoul: IVP. Trans. Wilkens. S. & Sanford. M. (2009). *Hidden Worldviews: Eight cultural Stories That Shape Our Lives*. IL: IVP Academic.]
- 윤석인 역 (2009). **문화신학**. Vanhoozer, K., Anderson, C. A. & Sleasman, M. J. (2007). *Everyday Theology* 서울: 부흥과개혁사.
- [Yoon, S. I. (2009). *Cultural Theology*. Seoul: History of revival and reform. Trans. Vanhoozer, K., Anderson, C. A. & Sleasman, M. J. (2007). *Everyday Theology: How to Read Cultural Texts and Interpret Trends (Cultural Exegesis)*. MI: Baker Academic.]
- 윤종석 역 (2007). **스캇 펙의 거짓의 사람들**. Peck, M. S. (1998). *People of the Lie: The Hope for Healing Human Evil*. 서울: 비전과 리더십.
- [Yoon, J. S. (2007). *Scott Peck's People of the Lie*. Seoul: Vision & Leadership. Trans. Peck, M. S. (1998). *People of the Lie: The Hope for Healing Human Evil*. Touchstone.]
- 이수진. (2019) 라캉의 나르시시즘 개념 고찰의 정신분석 실천적 의미. **현대정신분석**. 21(2). 77-112.
- [Lee, S. J. (2019). A Study of the Meaning of Psychoanalytic Practice about the Consideration of Lacan's Concept of Narcissism. *The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analysis*. 21(2). 77-112.]
- 이수형·현은자 (2022a). 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 수상 그림책의 세계관 분석. **어린이문학교육 학회**. 23(2). 201-227.

- [Lee, S. H. & Hyun, E. J. (2022). *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 Winning Picturebook's Worldview Analysis*. *Korean Society of Children's Literature & Education*. 23(2). 201-207.]
- 이수형·현은자. (2022b). 뉴에이지 그림책의 기독교 세계관 조명. **신앙과 학문**. 27(2). 105-135.
- [Lee, S. H. & Hyun, E. J. (2022). An Analytic study of New Age Picturebook within Christian Worldview. *Faith & Scholarship*. 27(2). 105-135.]
- 이재현 (2020). **성경 속의 심리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 [LEE, J. H. (2020). *Bible & Psychology*. Seoul: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 이재현 (2021). **뒤집어 읽는 심리학**. 서울: CLC]
- [Lee, J. H. (2021). *Psychology of reading in reverse*. Seoul: CLC]
- 이화진 (2011). **그림책 읽기 후속활동이 영아의 언어 및 사회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 [Lee, H. J. (2011) *The Influence of Follow-up Activities after Reading Picture Books on Language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of Infants*. Masters Dissertation. Kyungsung University, Busan, Korea.]
- 임철규 역 (2000). **비평의 해부**. Frye, N. (1967). *Anatomy of Criticism*. 파주: 한길사.
- [Lim, C. K. (2000). *Anatomy of Criticism*. Paju: Hangilsa. Trans. Frye, N. (1967).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장혜영 역 (2010). **신이 된 심리학**. Vitz, P. (1995). **Psychology as Religion**. 서울: 새물결플러스.
- [Jang, H. Y. (2010). *Godly Psychology*. Seoul: New wave plus. Trans. Vitz, P. (1995). *Psychology as Religion: The Cult of Self-Worship*.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 정주원 (2005). **그림책을 활용한 상위언어인식 활동이 유아의 상위언어인식, 읽기능력, 마음이론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 [Jung, J. W. (2005). *The Influence of Metalinguistic Awareness Activities Using Picture Books on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Metalinguistic Awareness, Reading Ability and Theory of Mind*. Doctoral Dissertation.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정현구 (2022). **“끝남(Ending) 과 이어짐(Anding)”: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시는 예수님**. 서울영동교회.
- [Jang, H. G. (2022). *“Ending and Anding” - Jesus, where the road ends, becomes the road*. Seoul: Seoul Yeongdong Church]
- 정소영 역 (2018). **글로벌 성혁명**. Kuby, G. (2012). *The Global Sexual Revolution*. 서울: 밝은 생각.
- [Jang, S. Y. (2018). *The Global Sexual Revolution*. Seoul: Bright think. Trans. Kuby, G. (2012). *The*

- Global Sexual Revolution. NY: Angelico Press.]
- 최미선 (2022). [작가론] 마모되지 않는 동화 창작 펜. *아동문학평론사*. 47(4). 88-97.
- [Choi, M. S. (2022). [The Theory of Writers] A Non-Abrasive Fairy Tale Pen. *The Society for Korean Children's Literature*. 47(4). 88-97]
- 홍승기 역 (2004). *루이스 vs 프로이드*. Nicholi, A. (2002) *The Question of God*. 서울: 홍성사.
- [Hong, S. K. (2004). *Lewis vs Freud*. Seoul: Hongsungsa. Trans. Nicholi, A. (2002). *The Question of God: C.S. Lewis and Sigmund Freud Debate God, Love, Sex, and the Meaning of Life*. NY: FREE PRESS.]
- 현은자 (2022). 세계 최초의 그림책, 『세계도회』의 그림 읽기. *그림책 베이직*. 4. 3-10.
- [Hyun, E. J. (2022). *Reading Pictures from the World's First Picture Book 『Orbis Pictus』*. *Picturebook Basic*. 4. 3-10.]
- 현은자-김세희. (2007). *그림책의 이해 1*. 파주: 사계절.
- [Hyun, E. J. & Kim, S. H. (2007). *Looking at picturebooks*. 1. Paju: Sakejul]
- 현은자-김주아 (2019). Vanhoozer의 신학적 문화해석에 기초한 자바카 스텝토의 빛나는 아이(2016)해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0(2) 41-73.
- [Hyun, E. J. & Kim, Jua. (2019). Interpretation of Javaka Steptoe's <Radiant Child> (2016) based on Vanhoozer's Theological Cultural Hermeneutics. *Korean Society of Children's Literature & Education*. 20(2). 41-73.]
- 현은자-이지운 (2021). Anthony Browne의 『고릴라』에 그려진 전복(subversion)의 이미지,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2(1), 1-25.
- [Hyun, E. J. & Lee, J. U. (2021). The Images of Subversion in Anthony Browne's 『Gorilla』. *Korean Society of Children's Literature & Education*. 22(1), 1-25.]
- 현은자-정희영·황보영란 역 (2001). *기독교세계관으로 가르치기*. Albert, E. G. Jr. (1998). *Ra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A Transforming Vision*. 서울: CUP.
- [Hyun, E. J., Jung, H. Y. & Hwangbo, Y. R. (2001). *Teaching with A Christian Worldview*. Trans. Albert, E. G. Jr. (1998). *Ra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A Transforming Vision*. Colorado: ACSI.]
- Annunziato, S. (2014). A Child's Eye View of Where the Wild Things Are: Lessons from Spike Jonze's Film Adaptation of Maurice Sendak's Picture Book. *Journal of children and Media*. 8(3). 253-266.
- Beckett, S. L. (2012). *Crossover Literature: A genre for all ages*. New York: Routledge.
- Bettelheim, B. (1969). The care and feeding of monsters. *Ladies Home Journal*, 48.

- Bruce (2009) Where the Wild Things Weren't. *New York Times Book Review*; Oct 11, 2009; pg. 23.
- Cech, J. (1995) *Angels and wild things: The archetypal poetics of Maurice Sendak*. University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Charles, R. (2013). 'Where the Wild Things Are' turns 50. *The Washington Ps: Arts and Entertainment*. November 22, 2013.
- Donald, H. (2000). Children, War, and the Imaginative Space of Fairy Tales. *The Lion and the Unicorn; Baltimore*. 24(3) 360-377.
- Favat, F. (1977). *Child and Tale: The Origins of Interest*. Urbana, IL: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 Freud, S. (1900).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SE, 4-5.
- Freud, S. (1926). Inhibitions, Symptoms, and Anxiety. 재인용 Kloss, R. J. (1989). Fantasy and fear in the work of Maurice Sendak. *Psychoanalytic Review*, 76(4). 567-576.
- Fretz, S. (1970). *Library Journal*. 95. 4341. 재인용 Kloss, R. J. (1989). Fantasy and fear in the work of Maurice Sendak. *Psychoanalytic Review*, 76(4). 567-576.
- Haviland, V. (1971). Questions to an Artist Who is Also an Author. *Quarterly Journal of the Library of Congress*, 28:4.
- Joseph, S. (2000). Maurice Sendak's urban landscapes. *Children's Literature; Baltimore*, 28(0), 132-146.
- Kidd, K. B. (2011). *Freud in Oz: At the Intersections of Psychoanalysis and Children's Literatur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Kloss, R. J. (1989). Fantasy and fear in the work of Maurice Sendak. *Psychoanalytic Review*, 76(4). 567-576.
- Lanes, S. (1980). *The Art of Maurice Sendak*. New York: Abrams.
- Ludden, J. (2005). Interview: Maurice Sendak discusses his work. *Weekend All Things Considered: Washington, D. C. : NPR*
- Mallet, C. (1994). *Fairytales and Children: The Psychology of Children Revealed Through Four of Grimm's Fairy Tales*. New York: Abrams.
- Meibauer, B. K. (2017). *From baby books to picturebooks for adults: European picturebooks in the new millennium*. World & Image.
- Morf, C. C., Horvath, S. & Torchetti, L. (2011). Narcissistic self-enhancement. In Alicke, M. D. & Sedikides, C. (Ed) (2011). *Handbook of self-enhancement*. 399-424. New York, NY:

Guilford Press.

Moskowitz, G. (2018). *Wild Outside in the Night: Maurice Sendak, Queer American Jewishness, and the Child*. ProQuest.

Patricia, C. (2008). Concerns Beyond Just [Where the Wild Things Are]: *The Art/Cultural Desk*. *New York Times*. Late Edition 10. Sep: E 1.

Reed, M. D. (1986). The Female Oedipal Complex in Maurice Sendak's [Outside Over There]. *Children Literature Association Quarterly*. 11(4). 176-180.

Richard, M. (2008). Maurice Sendak's Trilogy: Disappointment, Fury, and Their Transformation through Art Gottlieb.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New Haven* 63(0). 186-217.

Rollin, L. (2012). Freud in Oz: At the Intersections of Psychoanalysis and children's Literature (review). *Children's Literature Association Quarterly*, 37(4) 500-502. p.501.

Sale, R. (1978). *Fairytales and Children*. New York: Schocken.

Sutton, R. (2003). An Interview with Maurice Sendak. *The Horn Book Magazine*. November/December. 687-699.

국민일보(2016) “부활절 행사서 마지막 동화 구연하는 버락 오바마 부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491281&code=61221111&cp=nv>(검색일 2023.01.20.)

[Kukminibo (2016) Barack Obama and his wife narrate their last fairy tale at Easte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491281&code=61221111&cp=nv>(2023.01.20.)]

네이버사전 (2023) 작가정신 <https://ko.dict.naver.com/#/entry/koko/276cc5b4c43c41e48986677a10d7374b> (검색일 2023.06.06.)

[NAVER Dictionary (2023) Writer's Spirit <https://ko.dict.naver.com/#/entry/koko/276cc5b4c43c41e48986677a10d7374b> (2023.06.06.)]

노동법률 (2022) “앤디 워홀의 ‘팩토리(Factory)’와 팝아트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19&in\\_cate2=0&gopage=1&bi\\_pidx=34649](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19&in_cate2=0&gopage=1&bi_pidx=34649) (검색일 2023.01.22)

[Laborlaw (2022) “Andy Warhol's Factory and Pop Art”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19&in\\_cate2=0&gopage=1&bi\\_pidx=34649](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19&in_cate2=0&gopage=1&bi_pidx=34649) (2023.01.22.)]

생명과학대사전 NAVER 지식백과 (2008) “정신분석”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693749&cid=60261&categoryId=60261>(검색일

2022.06.29.)

[Bioscience dictionary NAVER Knowledge Encyclopedia (2008) “Psychoanalyse” Retrieved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693749&cid=60261&categoryId=60261> (2022.06.29.)]

철학사전 NAVER 지식백과 (2009). “에코티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88290&cid=41978&categoryId=41985> (검색일 2023.01.20.)

[Dictionary of Philosophy NAVER Knowledge Encyclopedia (2009). “égotisme“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88290&cid=41978&categoryId=41985> (2023.01.20.)]

채널예스 (일자미상). “고립과 고독이 키운 예술가, 모리스 샌닥.”

<http://ch.yes24.com/Article/View/13158>(검색일 2023.01.20)

[ChannelYes (Unknown date) “Maurice Sandak, Artist Raised by Isolation and Solitude” Retrieved from <http://ch.yes24.com/Article/View/13158>(2023.01.20.)]

크리스천투데이 (2023). 조던 피터슨 교수는 어떻게 회심했을까.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9188> (검색일 2023.06.06.)

[Christiantoday (2023) How did Professor Jordan Peterson Repent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9188> (2023.06.06.)]

ALMA (일자미상). 모리스 샌닥. <https://alma.se/en/laureates/maurice-sendak/>(검색일 2023.06.06.)

[ALMA (Unknown data). Maurice Sendak <https://alma.se/en/laureates/maurice-sendak/> (2023.06.06.)]

alsc (일자미상). “랜돌프 칼데콧 메달” <https://www.ala.org/alsc/awardsgrants/bookmedia/caldecott>(검색일 2023.01.20.)

[alsc (Unknown date). “Randolph Caldecott Medal” <https://www.ala.org/alsc/awardsgrants/bookmedia/caldecott> (2023.01.20.)]

Kyobo, (일자미상). “깊은 밤 부엌에서”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0734525> (검색일 2023.01.20.)

[Kyobo. (Unknown data). “In the Night Kitchen”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0734525> (2023.01.20.)]

kyobo. (일자미상) 인물검색> 폴 비츠 <https://www.kyobobook.co.kr/service/profile/information?chrcCode=2001660201> 검색일 2023.06.06.)]

[kyobo. (Unknown data) Paul Vitz <https://www.kyobobook.co.kr/service/profile/information?chrcCode=2001660201> (2023.06.06.)]



KRMNews (2020). “이스라엘 동성애 실태” <https://krmnews.tv/2020/06/25/israel-lgbt/> (검색일 2022.06.29)

[KRMNews (2020). “Israel’s Homosexuality” <https://krmnews.tv/2020/06/25/israel-lgbt/> (2022.06.29.)]

# 모리스 센닥 그림책의 심리 해석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 조명 - Vanhoozer의 문화 해석 관점을 중심으로\*

## An Analytic Study of Christian Worldview about Maurice Sendak Picturebook within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Cultural Interpretation of Vanhoozer

이수형 (안산대학교)

박은주 (경민대학교/교신저자)

### ABSTRACT

그림책의 시작은 『세계도회』로서 어린이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대 그림책의 의미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격하고 흥분된 감정을 드러내며 아이다움을 발산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연구자들은 변화의 기점을 모리스 센닥의 그림책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정신분석적 해석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기에, 벤후저(2007)의 문화해석학 방법론에 따라 텍스트 분석과 함께 기독교적 조명을 실시하였다.

『깊은 밤 부엌에서』 그림책의 텍스트 자체 세계에서는 미국의 산업시대를 풍미하며, 판타지 장르로서 정신분석적 해석에 따라 어린이가 백일몽을 이루는 욕구 충족이 나타났다. 텍스트 뒤의 세계에서 그는 유대인 이민자 3세로서, 십대에 독립하면서 가진 불안으로 심리상담을 지속해왔었다. 그는 작가로서 비윤리적이며, 어린이를 생각하지 않는 작가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텍스트 앞의 세계에서 연구자들은 센닥의 그림책은 어린이보다 성인의 감정해소로 선호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으며, 진보적인 사상가들이 그의 작품을 극찬하였다.

텍스트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으로 텍스트는 자아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 및 심리학의 영향이 우리 사회의 자아주의를 더욱 양산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주제어: 신학적 문화해석학, 기독교적 조명, 정신분석, 자아주의